



주최측의. 다양한. 서비스와.....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꺼리'. 넘치는. 국제도서전. 만들자.....

이혜원 · 출판문화협회 기획사업부

2004 서울국제도서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제도서전으로 격상된 지 1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양적 성장을 통해 전시 공간을 확대하고, 일반 단행본 참가사와 아동·교육 참가사의 전시장을 분리하여 전문성의 강화를 꾀하였으며, 전자책산업전, 북아트전 등 관련 전시를 함께 개최하여 출판문화산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공생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도서전에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붙잡아 둔 곳은 아동·교육관과 북아트전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책을 이 기회에 저렴하게 구입하고 선물도 얻어가려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높은 향학열과 경제감각 때문이겠지만, 단순히 구매를 위해 왔다는 것만으로 설명되기에는 인도양 홀에 머물러 있었던 관람객들의 수를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읽는 책이 아닌 철저히 예술성이 부각되는 북아트전에 일반 성인관람객들이 몰렸던 사실도 경제적인 원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준다.

아동·교육관과 북아트전에 관람객들이 몰렸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볼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교육 관련 참가사들은 다양한 자료와 갖가지 이벤트로 지나가는 관람객들을 일단 멈추게 한다. 해당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도서와 관련된 캐릭터 인형이나 문제풀기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도서와의 간격을 좁히며 해당 도서에 관한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그러한 관심들이 현장에서의 구매를 유도하느냐는 나중 문제다. 관람객들이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출판사명은 각인되었으며, 나중이라도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아트전도 마찬가지였다. 판매가 아닌 전시만을 위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책의 신기한 모습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태평양홀의 일부 부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디지털카메라 열풍을 반영하듯, 도서전에서도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졌다. 특히 태평양홀의 대형 독립부스들은 인기 있는 포토스팟이 되었다. 볼 만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그 볼거리가 무슨 책에 관련된 것인지 또 본다. 그제야 관람객들은 이러한 책들이 이런 출판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출판사의 이름도 인식을 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구매가 성립되느냐는 역시 중요하지 않다. 향후에 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도서전에서 보며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출판사 책을 고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꺼리'가 준비된 2004서울국제도서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저작권상담과 거래의 장이라는 의미가 축소된 국제도서전은, 전시회이며 박람회이다. 여전히 잔치로서의 성격은 남아 있으며, 잔치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기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도서전 주최측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집주인을 넘어, 직접 전시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주최측만이 할 수 있는 여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를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해외 참가사를 적극 유치하며, 무엇보다 국내 출판사, 저작권 에이전시, 서점, 도서관, 유관단체 등 출판관련 조직의 폭넓은 참가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 하나, 참가사들에게도 제안을 하고 싶다. 도서전에 오는 관객들은 대형서점과 같이, 책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니다. 전시회 특유의 볼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가사는 관람객을 위해, 보여주어야 한다. 작가 소개, 책의 뒷이야기, 일러스트 등을 판넬 형식 혹은 벽장식의 형

식으로 늘어놓아 지나가는 관람객을 붙잡아둔 뒤, 자연스럽게 책에도 시선이 가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저자사인회 등 책과 관련된 이벤트를 개최하여 독자들을 도서전으로 불러들여도 좋다. 아니면 기획단계의 책을 보여주었고, 그 기획의 과정들을 한눈에 보게 한다면, 또한 해당 도서의 사전예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책과 연계된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면, 적정 수준의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내외의 저작권 상담자나 서점, 도서관 관계자들, 저자 등 전문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어 도서전이 와볼 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출판사들은 훌륭한 작가를 보유하고 있고, 책에 관해 할 이야기도 많으며, 그만큼 다양한 콘텐츠로 보여줄 거리도 많으니, 필요한 것은 도서전에 나와 좋은 내용으로 많이 보여주고 효과적으로 자랑하는 일 뿐이다.

2005년은 세계 최대·최고의 도서전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해이다. 주빈국 조직위원회는 물론, 개별 출판사들도 무엇을 보여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준비를 위해 2005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먼저 볼거리를 실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도서전을 잘 치르고 난 뒤라면, 그 장단점을 거울삼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도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매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최측과 참가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주최측과 참가사가 서울국제도서전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노력해 가면, 대국민 문화페스티벌로서의 도서전시회와, 전 세계 출판인이라면 꼭 들러볼 만한 국제도서전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한**